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9월 27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로마서 12장 1-2절

설교제목 : “너희 몸을”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빛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과 삶이 분리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1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하는 원인 결과 접속사입니다. 이것은 앞과 뒤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믿음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즉 삶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므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체성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경적인 믿음은 반드시 삶 즉 행함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약2:26) 믿음과 행함은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 곧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삽니다.(롬12:1) 롬12:1에서 ‘**너희 몸을..드리라**’에서 ‘**드리라**’는 헬라어 ‘**파리스테미**’는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법적용어입니다. 결국 믿음의 백성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 즉 퀴리오스이심을 고백하는 자로써,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면 안되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되심과 주권자되심을 분리시켜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용서의 위안과 심리적 평안 안정에만 얻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삶에 주인으로 여기며 모든 삶을 그분의 주권 가운데 두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결코 구원자되심과 왕되심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란 무엇으로 증명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본문에서 ‘**몸**’이란 헬라어 ‘**소마**’입니다. 소마는 ‘**전인**’, 혹은 ‘**우리의 전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소마**’는 존재 뿐 아니라 내가 사는 **일상과 삶** 모두를 포함합니다. 구약의 제물은 짐승이나 곡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나와 내 일상과 삶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짐승이나 곡식의 제물을 안받으십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나와 내 일상과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과 일상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구약에 있어 제물의 가장 큰 조건이 흠이 없어야 합니다.(레1:3) 레1:3은 번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온전히 태워드린다는 것이 우리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삶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번제는 로마서 12:1의 **너희 몸을 드리**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번제의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흠이없다**’는 의미가 오늘 신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이란 의미와 같습니다. 곧 구약의 흠이 없는 제물이란, 신약에서 **내 자신과 일상과 삶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즉 흠없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창4:2) 히브리 성경을 보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던 제사나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제사가 모두가 ‘**미느하**’로 같습니다. ‘**미느하**’는 감사제입니다. 가인이나 아벨이나 제사가 모두 감사제입니다. 그러면 제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자와 그의 삶이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창4:4-5)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받으신 이유는 그가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삶이 흠이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의식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무엇으로 증명되니까? 우리 자신과 일상적인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 증명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 삶 즉 생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업 자체는 단순한 경제활동이나 생계수단 혹은 자아 수단의 통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 생업 자체가 예배입니다. 우리의 생업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직장과 신앙생활을 절대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생활을 잘 하는 그리스도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장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나라에서 영적으로 번역된 ‘로기켄’은 ‘합리적’, ‘합당한’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마디로 결코 세상에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롬12:2) 믿음의 삶의 핵심은 뒤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구별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삽니다. 세상의 가치와 뒤섞이지 않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섞이면 죽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새롭게 변화된 존재입니다. 형태가 아닌, 성질의 본질적 변화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인 세계관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세계관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경의 세계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의 기준대로 삽니다. 합당한 예배의 삶의 기초는 세상의 가치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분별력입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되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 한 사람의 변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자신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정체성과 삶, 믿음과 행함이 왜 분리될 수 없는지 설명해 봅시다.
- 2) 너희 몸을 드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무엇으로 증명되는지 설명해 봅시다.
- 4)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봅시다.
- 5)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우리는 공예배와 삶의 예배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예배와 삶의 예배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신앙의 위험성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 시대의 참된 예배자는 어떤 자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